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5.6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62.80원 (-20.50원)

KOSPI

6,936.99 (+338.12, +5.12%)

KOSDAQ

1,213.74(+21.39, +1.79%)

국고채 10년 금리

3.932(+0.00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실전 퀀트	5월 MSCI KOREA 예상 및 전략 [이경수]

기업분석

현대코퍼레이션	분기 최대 이익 경신 [유재선]
롯데칠성	1Q26 Re: 호실적에도 사측 연간 가이던스 유지 [심은주]
엘앤에프	EV 테슬라와 ESS LFP 시너지 효과 [김현수]
팬오션	1Q26 Re: 에너지 선사로서 돋보일 때 [안도현]

산업분석

통신 장비	6월 전에 국내 무선통신장비주 매수하세요 [김홍식]
방위산업	독일 주둔 미군 일부 철수 보도: 글로벌 국방비 증액 논리 강화 [채운샘]

Monthly & Weekly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2026년 3월 EV +4%. 유럽 전기차 판매 성장세 [송선재, 김현수]
건설	26년 1분기 실적 정리 [김승준, 하민호]

글로벌리서치

에퀴닉스(EQIX.US)	마진율 사상 최고치 + 연간 가이던스 상향 [하민호]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LIG디펜스앤에어로, 삼양식품, DN오토모티브, LX인터내셔널, 리노공업, 심텍, 덕산테코피아, 세나테크놀로지

하나증권

5월 MSCI KOREA 예상 및 전략

실전 퀀트 | 2026.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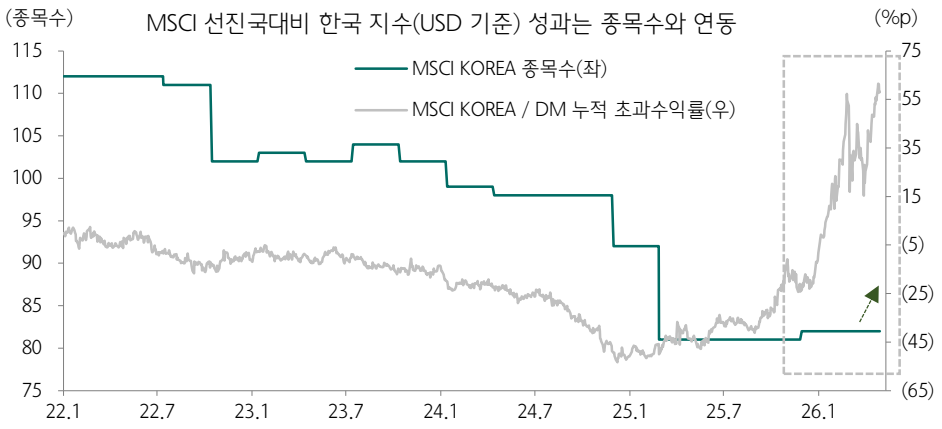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레인보우로보틱스, 키움증권 순으로 편입 가능성 높아, 한진칼은 편출

오히려 8월 MSCI 기대감 베팅 시기, 대우건설, LS, 이수페타시스

- 5월 한국 MSCI 편입 예정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편입 확률 70%), 키움증권(30%)로 예상, 편출은 한진칼
- 4월 17일~30일 사이 시총 기준으로 시총 및 유동시총 모두 허들은 넘기는 종목은 없음
- 다만, 한진칼이 당시 유동시총 허들을 넘지 못하면서 편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종목 수 변화가 없다는 가정으로, 당시 시총이 가장 높았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편입 가능성이 더 높음(10 거래일 중 7번 레인보우로보틱스 1위, 3번 키움증권 1위)
- 가격 평가 기간의 특이점 1) 대우건설은 22일, 30일 기준으로 허들은 넘겼지만, 주가 과열 기준(섹터 지수대비 1달 100%p 이상 초과 성과면 제외)을 충족하지 못해 5월에는 편입 불가능 전망
- 특이점 2) 삼천당제약의 가격 평가 기준 직전 급락세로 편입 가능성 100% → 0%, 향후 MSCI 후보군 팔로우업 시, 실적 중요성 증대
- 한편, 달러 기준 한국의 주가는 선진국대비 매우 강한 초과성과를 냈고, 이는 MSCI KOREA 종목 수 변화에 핵심 이슈
- 결국, 이로 인한 종목 수 증가 가능성은 있어 1개 정도 종목 수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함께 키움증권도 편입 가능성 있음(최근 한국의 초과성과에도 종목 수 증가가 없었다는 점도 참고)
- 이번 5월 13일(오전) MSCI 5월 리뷰(종목 확정) 이후 8월 MSCI 편입 종목에 대한 베팅이 시작될 것
- 8월 MSCI 주가 평가 기간인 7월 중순~말일은 2분기 실적시즌 한창일 시기, 현재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MSCI 후보군에 관심이 필요
- 결국, 대우건설, LS, 이수페타시스, 삼성E&A, 삼성증권 관심 필요

도표 1. MSCI 선진국지수대비 한국 지수(달러 기준) 초과성과와 한국 종목 수는 연동



자료: Bloomberg,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하나증권

2026년 5월 6일 I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현대코퍼레이션 (011760)

분기 최대 이익 경신

BUY (유지)

목표주가(12M)	38,000원(상향)
현재주가(5.04)	30,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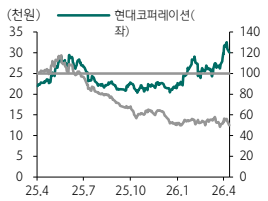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936.99
52주 최고/최저(원)	32,550/20,350
시가총액(십억원)	398.2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13,229.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8.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
외국인지분율(%)	10.80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외 4 인	24.96
케이씨씨	12.0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8,095.2	8,337.4
영업이익(십억원)	158.1	169.4
순이익(십억원)	109.9	118.6
EPS(원)	8,262	8,922
BPS(원)	67,705	77,22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995.7	7,554.3	8,067.5	8,052.1
영업이익	133.5	140.1	164.4	161.6
세전이익	152.5	75.3	137.7	141.3
순이익	121.1	86.8	91.5	112.1
EPS	9,152	6,561	6,914	8,476
증감율	44.67	(28.31)	5.38	22.59
PER	2.09	3.28	4.47	3.65
PBR	0.38	0.40	0.51	0.45
EV/EBITDA	3.21	6.16	5.70	5.36
ROE	19.70	12.91	12.46	13.55
BPS	50,876	53,953	60,231	68,072
DPS	700	700	700	7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38,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현대코퍼레이션 목표주가 38,000원으로 기존대비 15.2% 상향하며 투자의견 매수 유지한다. 2026년 예상 EPS에 목표 PER 5.5배를 적용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철강 등 부진했던 부문은 시황 회복으로 2025년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에너지상용부품도 회복 추세로 전환되었다. 석유화학 부문의 일시적 증익 효과를 감안하면 2분기부터는 이익 성장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사적으로는 연간 증익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다. 2026년 추정 실적 기준 PER 4.5배, PBR 0.5배다.

1Q26 영업이익 461억원(YoY +24.9%)으로 컨센서스 상회

1분기 매출액은 2.1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1.6% 증가했다. 환율이 우호적이었고 사업부문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났다. 철강은 미국 관세 등 글로벌 통상 규제 영향으로 전년대비 외형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25년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국면으로 판단된다. 승용은 CIS 지역 수요 감소를 중남미, 중동 등에서 만회하며 성장하는 모습이다. 에너지상용부품은 견조한 전력기기 수요를 바탕으로 배전변압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직전 분기 관세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매출 공백이 해소되며 성장 추세로 전환되었다. 기계인프라는 신규 법인 인식 효과에 더해 건설기계 수요 증가로 개선되었다. 석유화학은 3월 유가 급등에 따른 래깅 효과로 외형이 크게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9% 증가했다. 이익률은 2.2%로 전분기대비 0.4%p 개선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철강은 전년대비 부진했지만 시황은 저점을 통과하며 전분기대비로는 이익률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승용은 신규 법인 연결 인식 효과와 수요 증가로 이익률이 상승했다. 에너지상용부품은 북미 매출 Mix 변화로 마진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외형 성장으로 이익은 증가했다. 기계인프라는 건설기계 시황 개선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확대로 실적이 성장했다. 석유화학은 3월 유가 상승 영향으로 이익이 급증했다. 세전이익은 355억원으로 전년대비 21.7% 성장했으며 순이익은 부실채권 제각 관련 이연법인세 조정으로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며 감소했다.

M&A를 통한 이익 성장 전략 지속될 전망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이슈가 글로벌 불확실성 요소로 부각되고 있지만 주요 사업 부문의 실적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호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 인수를 통한 성장 전략도 전사 이익 개선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올해도 신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강화 또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26년 5월 6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롯데칠성 (005300)

1Q26 Re: 호실적에도 사측 연간 가이던스 유지

BUY (유지)

목표주가(12M)	170,000원
현재주가(5.4)	126,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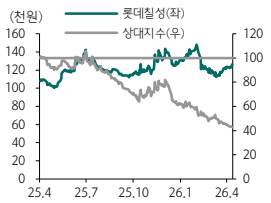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936.99
52주 최고/최저(원)	148,200/100,600
시가총액(십억원)	1,172.9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9,278.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4.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1
외국인지분율(%)	15.30
주요주주 지분율(%)	
롯데지주 외 16 인	59.73
국민연금공단	7.6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102.3	4,260.0
영업이익(십억원)	204.8	231.5
순이익(십억원)	106.2	124.6
EPS(원)	10,306	12,085
BPS(원)	157,005	164,93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024.5	3,971.1	4,110.3	4,233.6
영업이익	184.9	167.2	212.4	229.4
세전이익	96.5	83.9	144.1	162.8
순이익	59.1	47.2	105.0	108.3
EPS	5,878	4,697	10,445	10,770
증감율	(64.37)	(20.09)	122.38	3.11
PER	19.05	29.64	11.72	11.36
PBR	0.75	0.92	0.77	0.74
EV/EBITDA	6.57	7.22	6.03	5.66
ROE	3.99	3.13	6.74	6.64
BPS	149,082	151,359	158,404	165,774
DPS	3,400	3,400	3,400	3,4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Q26 Re: 시장 기대 상회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9,525억원(YoY 4.6%), 478억원(YoY 91.0%)을 시현했다. 기저 및 비용 절감 노력 기인해 시장 기대를 상회했다.

① 음료(본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142억원(YoY 1.5%), 211억원(YoY 62.0%)을 시현했다. 내수 매출이 전년수준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거점 통합/ 인력 조정 등 고정비 절감 노력이 주효했다. 카테코리별로는 탄산/커피/생수/주스가 각각 YoY 2.7%/ 1.0%/-7.9%/1.1% 증감했다. ② 주류(본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942억원(YoY 0.7%), 156억원(YoY 9.6%)을 기록했다. 역시나 내수 매출은 전년수준을 시현했다. 소주/맥주/와인 매출은 각각 YoY 2.6%/-25.3%/-2.3% 증감했다. 맥주 감소 폭이 큰데, SKU 조정에 따른 역기저에 기인한다. ③ 'Pepsi-Cola Products Philippines(필리핀 펩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589억원(YoY 1.8%), 54억원(YoY 흑전)을 시현했다. 비용 절감 프로젝트가 주효했다. 'Lotte MGS Beverage(미얀마)'는 콜라 원액 통관 이슈가 해소되면서 OP 46억원(YoY 흑전)을 기록했다. 'Lotte Akhtar Beverages(파키스탄)'은 일회성비용이 반영되면서 OP 10억원(YoY -73.5%)을 기록했다.

호실적에도 사측 연간 가이던스 유지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기존 연간 가이던스(연결 매출 YoY 3.2%, 손익 2천억원 수준)를 유지했다. ① 국내 음료 및 주류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부담으로 지목했다. 1분기 음료 및 주류(소주/맥주) 시장은 YoY -2%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점 및 유흥주점 폐점과 주류 문화 변화에 기인한다. ②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해외법인의 공급망 이슈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틸리티 및 부자재(알루미늄, PET 등)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③ 국내도 전쟁 영향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으나 실적 모멘텀 약화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11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다. 다만, 내수 부진을 차치해도 주요 해외법인이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어 공급망 이슈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법인의 이익 가시성이 낮아진 점이 아쉽다.

2026년 5월 6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엘앤에프 (066970)

EV 테슬라와 ESS LFP 시너지 효과

BUY (신규)

목표주가(12M)	273,000원
현재주가(5.04)	2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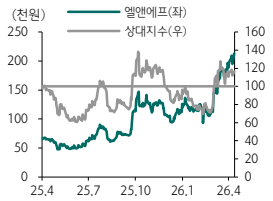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936.99
52주 최고/최저(원)	213,000/47,800
시가총액(십억원)	8,597.9
시가총액비중(%)	0.15
발행주식수(천주)	40,365.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00.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3.4
외국인지분율(%)	19.68
주요주주 지분율(%)	
새로닉스 외 18 인	25.33
국민연금공단	8.5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851.3	3,759.7
영업이익(십억원)	153.0	197.4
순이익(십억원)	(3.4)	64.2
EPS(원)	(77)	1,574
BPS(원)	16,075	17,92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907.5	2,154.9	3,424.7	4,050.8
영업이익	(558.7)	(156.8)	260.9	214.9
세전이익	(519.5)	(567.8)	1.7	100.1
순이익	(377.9)	(533.5)	(13.0)	78.3
EPS	(10,416)	(14,393)	(322)	1,940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	(7.78)	(6.61)	(605.90)	100.57
PBR	4.08	5.65	11.85	10.60
EV/EBITDA	(9.12)	(76.67)	26.71	27.67
ROE	(41.74)	(76.95)	(1.95)	11.20
BPS	19,859	16,841	16,466	18,406
DPS	0	0	0	0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1Q26 Review :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엘앤에프 1Q26 연결 실적은 매출 7,396억원(YoY +102.8%, QoQ +19.7%), 영업이익 1,173억원(YoY 흑전, QoQ +42.2%)으로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기록했다. 재고자산평가환입이 926억원 반영되며 영업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는데, 재고자산평가환입 효과 제외할 경우에도 영업이익 247억원(OPM 3.3%)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 +2.6%p 개선됐다. 이는 크게 두가지 요인에 기인하는데, 1) 하이니켈 판매량 증가 : 유럽/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가 지속 증가하며 동사가 단독 공급 중인 하이니켈 제품 판매량 역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판가 상승: 작년 하반기 이후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통상 3~6개월 시차가 발생하는 래깅 효과를 반영해 판가 역시 회복, 이에 따른 매출 성장 및 레버리지 효과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 : P, Q 모두 긍정적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 8,715억원(YoY +67.6%, QoQ +17.8%), 영업이익 533억원(YoY +37.0%, QoQ +2.6%)로 흑자 기조 지속될 전망이다.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의 견조한 수요 증가세 이어지면서 양극재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테슬라 일부 모델에는 엘앤에프가 삼원계 양극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2분기 역시 독점 공급 지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수혜가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리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판가 역시 상승하며 매출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LFP 양산 본격화에 따른 매출 성장 전망

엘앤에프는 7개 분기(4Q23~2Q25)동안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부담 및 전방 수요 둔화로 영업적자 지속된 바 있다. 하지만, 3Q25 테슬라 Model Y 신형 출시와 유럽 EV 수요 회복으로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성공한데 이어, 4Q25에는 탄산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재고평가손실 환입(77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큰 폭 개선(QoQ +10%p)됐다. 2026년에도 상반기 재고 환입 효과와 하반기 ESS용 LFP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흑자 기조 이어질 전망이다. 1) LFP 양극재 부문의 경우, 국내 양극재 업체 가운데 가장 빠른 양산 체계를 구축했으며(국내 주요 경쟁사 2027년 양산 예정), LFP CAPA를 올해 3만톤 수준에서 향후 6만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SDI와 체결한 약 1.6조원 규모의 ESS향 LFP 공급계약을 통해 증설 CAPA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국내 셀 메이커들의 미국 현지 ESS CAPA 확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공장에 필요한 LFP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내 양극재 업체가 사실상 엘앤에프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다. 미국 내 AMPC 수취 조건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는 점도 엘앤에프의 향후 실적 추가 상향 조정을 기대케 하는 요인이다. 2) 하이니켈 양극재 부문의 경우, 원통형 하이니켈 신제품을 통해 테슬라 내 입지를 지속 강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NCMA90 → NCMA95 중심 믹스 전환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제는 완전한 흑자 기조 진입했다는 점에서 다시 미래 실적에 근거한 Valuation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2028-2030년 구간에 예상되는 최대 CAPA와 삼원계 및 LFP 양극재간의 판가 차이를 고려한 가중평균 ASP, Target P/E 30배 적용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는 273,000원을 제시한다.

2026년 5월 6일 | 기업분석

팬오션 (028670)

1Q26 Re: 에너지 선사로서 돋보일 때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원(상향)
현재주가(5.04)	5,6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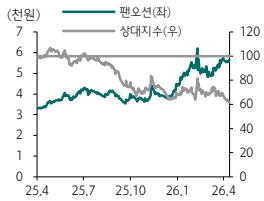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936.99
52주 최고/최저(원)	6,200/3,315
시가총액(십억원)	3,015.0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534,569.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936.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4
외국인지분율(%)	15.68
주요주주 지분율(%)	
하림지주 외 10 인	54.91
국민연금공단	8.6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849.8	5,910.6
영업이익(십억원)	541.2	577.6
순이익(십억원)	360.8	410.0
EPS(원)	675	767
BPS(원)	11,355	12,07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161.2	5,432.9	6,437.3	6,713.3
영업이익	471.2	491.9	579.4	638.2
세전이익	282.1	318.2	384.7	463.9
순이익	268.1	301.4	365.4	440.7
EPS	502	564	684	824
증감율	9.61	12.35	21.28	20.47
PER	6.57	6.83	8.25	6.84
PBR	0.31	0.36	0.50	0.47
EV/EBITDA	4.77	5.15	5.02	4.57
ROE	5.17	5.30	6.19	7.03
BPS	10,576	10,707	11,390	12,055
DPS	120	0	160	16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1분기 영업이익 1,409억원, 컨센서스 부합

팬오션 1분기 매출액은 8% (YoY) 증가한 1조 5,089억원,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1,409억원을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2026년 들어 팬오션은 용선을 보수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전쟁 이후 변동성 노출도가 크지 않았다. 1분기 벌크선 영업이익은 시황 상승(BDI +75% (YoY))에 힘입어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익한 547억원(+14%)을 기록했다. 컨테이너선 영업이익은 90억원으로 43% (YoY) 감익했으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실적을 견인한 것은 탱커선/LNG선 사업부였는데, 탱커선 영업이익은 전쟁 이후 운임이 급등하며 41% (YoY) 증가한 281억원을 기록했고, LNG선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2척의 장기대선계약이 온기 반영되며 472억원(+50%)이었다. 이외 곡물 사업부에서도 약 4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전쟁 이후 운임과 유류비가 동시에 상승하며 헤지 효과 발생

전쟁 이후 해상 운임과 유류비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어 실적 측면에서 헤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벌크선/LNG선은 장기계약 위주이고, 벌크선의 경우 전쟁 이전 성약된 스팟 물량 외에는 견조한 수익성 흐름을 보여줄 전망이다. 탱커선은 전쟁 이후 지역별 탱커 운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팬오션이 보유하고 있는 MR 탱커의 절반 가량을 Pool 내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 지역 탱커 운임 상승에 따른 실적 견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실적은 장기계약 벌크선/LNG선 안정적 증익과 탱커선의 운임 상승 효과가 유류비 상승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한다. MR 탱커의 수익력이 확인된 만큼, 팬오션에 대해서 연간 영업이익 5,840억원(+18% (YoY))으로 기존 대비 상향하여 추정한다.

벌크선사에서 에너지선사로, 목표주가 상향

현재 팬오션의 영업이익 중 60% 이상이 비벌크 사업부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팬오션에 대해서도 에너지 수송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동 분쟁이 야기할 에너지 수송 Shortage와 이로 인한 팬오션의 기업가치 제고를 기대한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중동->미주로의 에너지원 다변화를 감안하면 탱커선 전반에 대한 수요가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타겟 Valuation을 기존 P/B 0.55배에서 0.6배(Peer(0.87배) 대비 30% 할인)로 상향한다. 12MF BPS(11,667원)에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7,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2026년 5월 6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 장비

6월 전에 국내 무선통신장비주 매수하세요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5월 04일

쏠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18,64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98,00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53,00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50,000원 | CP 31,65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40,000원 | CP 23,55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15,06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150,000원 | CP 108,6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45,05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5,60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36,60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유선 광통신은 미국 업체, 무선 5G/6G는 국내 업체 위주로 매수 추천

최근 국내 통신장비업체 주가가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실적 호전 기대감이 낮은 일부 광통신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무선통신 선발업체들의 경우엔 낙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는 양상이다. 현 시점에서는 유선 광통신의 경우엔 여전히 미국 업체(시에나, 시스코, 코히런트, 루멘텀) 위주로 매수에 임하고, 무선통신의 경우엔 국내 업체(RFHIC/KMW/쏠리드/LIG아큐버/HFR/오이솔루션) 위주로 매수 비중을 크게 늘릴 것을 권한다. 미국의 중국 장비/부품 규제가 심화될 경우 유선에선 루멘텀, 코히런트 등 미국 광통신장비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나 무선의 경우엔 미국 업체가 없어 노키아, 에릭슨, 삼성, 후지쯔가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키아/에릭슨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노키아 주가도 최근 1년간 3.2배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에릭슨/후지쯔/노키아에 납품이 유력한 국내 아웃소싱 무선통신장비 업체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망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무선 투자, 미국 주파수 경매/국내 AI RAN 사업 본격화에 주목

현 시점에서는 무선 통신장비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 규모도 유선 대비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벤트도 다수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6월 주파수 본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국내 AI RAN 사업도 6월 말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라 기대를 갖게 한다. 통신장비 주가는 규제 기관의 정책 마련 후 주가 상승, 통신사 투자 계획 발표 후 주가 상승, 벤더 선정 후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6월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주파수 낙찰 받은 통신사 공개, 3분기 미국 통신사 공급업체 선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투자가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납품업체로 선정될 국내 주요 무선통신업체들의 경우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잠잠했던 국내 통신시장도 AI RAN 사업 본격화로 무선 투자 기대감 상승이 예상된다. 결국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SKT 위주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무선통신장비 업체 주가 2028년까지 오를 듯, 아직 한참 더 많이 오를 것

최근 미국/국내 통신장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가 고점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에릭슨, RFHIC/KMW/쏠리드/HFR 등 국내외 무선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고점 논란은 너무 빠르다는 판단이다. 이번 무선통신 투자의 경우 피지컬 AI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로 2027년 5G SA 구축을 시작으로 2030년 6G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4년간 장기 빅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주가 선반영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최소한 2028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무선 통신장비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며 최근 주가 상승 폭을 감안하면 이번 2025~2028년 국내 무선 통신장비주 랠리는 2018~2020년 랠리보다 더 길고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026년 5월 6일 | 산업분석_Update

방위산업

Overweight

독일 주둔 미군 일부 철수 보도: 글로벌 국방비 증액 논리 강화

독일 주둔 미군 약 5천명 철수 명령 보도

현지시각 5월 1일 미 국방장관이 향후 6~12개월에 걸쳐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약 5,000명의 철수를 명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유럽 내 미군 병력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이며 유럽 작전구역 현지 여건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에 남게 될 약 3만 명 안팎의 병력 운용 계획이나 이번 철수가 다른 NATO 회원국 주둔 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NATO 대변인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정은 유럽이 방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동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독일 국방장관도 이번 결정이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유럽이 자체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미군 주둔 현황: 1960년대 정점 이후 장기 하락. 현재 21.7만명 주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규모는 냉전과 베트남전쟁 시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2000년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병력 규모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전쟁 종료 이후에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중장기 흐름은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중반 이전 0에 가까워지는 경로에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편 2026년 3월 기준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총 약 21.7만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미군이 1만명 이상 주둔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독일, 한국, 쿠웨이트, 카타르, 폴란드로 총 7개국이다. 이번에 보도된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 철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은 약 3.4만명에서 2.9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 국방비 증액 논리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감소 추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1) 전체 미군 현역 병력 규모 축소(1950년대 364만명→2025년 137만명), 2) 미소 냉전 종료 이후 유럽에 대규모 병력을 상시 주둔시킬 필요성 약화, 3)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의 발전(1인당 전투력 상승→더 적은 병력으로 동일한 전력 유지 가능)이다. 물론 해외 주둔 병력 규모가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장거리 전력투사 역량과 그대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맹국 입장에서 미군 주둔은 단순한 전투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현지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이 해당 지역을 방어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 동맹국에 대한 안심 효과, 안보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결국 미국의 해외 주둔 병력 축소,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NATO 방위공약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유럽 및 주요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논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조정세를 보여온 유럽 방산주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한국 방산주에도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한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2026년 3월 EV +4%. 유럽 전기차 판매 성장세 | 2026.5.6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전기차: 3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4% (YoY)

글로벌
- 3월 182.2만대(+4% (YoY)). BEV/PHEV 130.8만대/51.5만대(+9%/-5%)

미국
- 3월 9.7만대(-36% (YoY)). BEV/PHEV 8.3만대/1.4만대(-27%/-62%)
- 2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모델3로 각각 1.70만대/0.80만대

중국
- 3월 95.6만대(-10% (YoY)). BEV/PHEV 67.3만대/28.3만대(-6%/-19%)
- 2월 판매대수 1위/2위는 Geely의 Star Wish/테슬라의 모델Y로 각각 2.73만대/2.58만대

유럽
- 3월 53.0만대(+35% (YoY)). BEV/PHEV 36.1만대/16.9만대(+36%/+34%)
- 2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 스코다의 ELROQ로 각각 1.16만대/0.85만대

한국
- 3월 3.4만대(+72% (YoY)). BEV/PHEV 3.3만대/0.1만대(+78%/-24%)

2차전지: 글로벌 3월 배터리 출하 +15%(YoY), CATL 1위

출하량
- 3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15%(YoY) 증가한 109.1GWh를 기록. 업체별 출하량은 CATL 42.7GWh(+17%), BYD 15.2GWh(-3%), LGES 11.8GWh(+16%), CALB 5.3GWh(+43%), SK on 3.9GWh(-6%), Panasonic 3.3GWh(-5%), 삼성SDI 2.2GWh(-28%)
- 3월 LFP 배터리 침투율은 글로벌 53.0%로 전월 대비 +7.8%p 상승

원재료 동향
- 주 원재료 가격 동향: 리튬/니켈/코발트/망간/구리/알루미늄/LiPF6 가격은 3월 +8%/-0%/-0%/+1%/-3%/+10%/-14%(MoM), 4월 +4%/+5%/+0%/+2%/+3%/+7%/-10%(MoM)

전기차(BEV+PHEV) 주요 지표 (2026년 3월)

(단위: 대, %)

지역	3월	YoY
글로벌	1,822,485	+4.4
미국	96,934	-35.8%
중국	955,996	-10.1%
유럽	530,321	+35.1%
한국	34,283	+71.6%

주: 소매판매 기준 / 자료: SNE Research, 하나증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업체별 순위

(단위: G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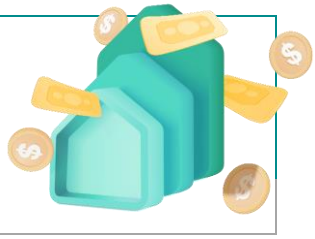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월 순위	업체명	3월	YoY	점유율	누적순위	누적	YoY	점유율
	Total	109.1	+15.0			244.6	+9.1	
1	CATL	42.7	+17.4	39.1	1	99.5	+15.2	40.7
2	BYD	15.2	-2.7	14.0	2	33.5	-7.9	13.7
3	LGES	11.8	+16.1	10.8	3	23.7	+6.6	9.7
4	CALB	5.3	+42.6	4.9	4	11.6	+31.3	4.8
5	SK on	3.9	-6.1	3.6	6	9.1	-10.3	3.7

자료: WardsAuto, CPCA, EV-sales, ACEA, KAMA, 현대차, 기아차, SNE Research, 하나증권

시사점 및 의견: LG에너지솔루션 유럽 출하량, 최근 3년 내 최대폭 증가

2차전지
- 2026년 3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는 29.3GWh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 반면, 국내 3사(LGES, 삼성SDI, SK on)의 유럽 출하량은 각각 6.2GWh(YoY +31%), 1.4GWh(YoY -2%), 2.1GWh(YoY +10%) 기록. 3사 모두 시장 성장률 하회했으나, LGES 출하량은 2023년 10월 이후 최대폭 증가하며 시장 성장률에 근접. 3사 합산 점유율 역시 30%대 지속 유지하며 유럽 OEM들의 non-Chinese 배터리 조달 비중 30% 방어 의지 확인. 향후 유럽 산업가속화법안(IAA) 구체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유럽 공장 가동률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 현재 LGES와 삼성SDI의 유럽 CAPA가 최근 2년 사이 약 15% 감소한 상황에서 유럽 시장 회복 시 가동률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확대될 것으로 판단. 미국 유휴 CAPA의 ESS 전환에 따른 가동률 상승 및 AMPC 수취 효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향후 셀 메이커들의 실적 증가세 뚜렷할 것으로 판단. 배터리 섹터 비중확대 의견 유지.

26년 1분기 실적 정리



건설 Weekly | 2026.5.6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3.5%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과 외인 모두 삼성E&A 외 전반적으로 건설주를 매도했다. 지난 주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DL이앤씨, LX하우시스 실적 발표가 있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6.6으로 4주 만에 하락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5주 연속 상승(+0.03%), 전세가는 46주 연속 상승했다(+0.09%). 수도권 매매가는 61주 연속 상승(+0.07%), 전세가는 62주 연속 상승했다(+0.15%). 서울 매매가는 66주 연속 상승(+0.14%), 전세가는 63주 연속 상승(+0.20%)했다. 지방광역시 매매가는 하락(-0.02%), 기타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39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35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5%, +0.04%).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7%), 부산(+0.01%), 인천과 대전 보합, 대구(-0.04%), 광주(-0.14%)가 하락했다.
- 건설섹터 대형사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부진한 가운데, 마진의 회복 혹은 레벨 상승이 이익을 견인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이며, 기대에 부합한 기업은 삼성E&A, 기대에 하회한 기업은 GS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이 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 중 대우건설은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반면, DL이앤씨는 일회성 이익 없이 높은 주택 마진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 주택건축 부문의 마진 회복이 두드러진 1분기 실적이었다. 회사별로 GPM이 GS건설 12.4%, 대우건설 20.8%(1회성 제거시 약 13% 추정), 현대건설 4.4%, DL이앤씨 20.1%, HDC현대산업개발 21.4%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12%를 상회하는 주택건축 마진을 기록했으며, 연간 마진 가이던스를 상향한 기업도 있었다(대우건설 13%→14%). DL이앤씨는 1분기 GPM 20%를 일회성 없이 기록했지만, 회사는 연간 원가율을 83%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가율이 높은 현장들의 종료로 마진 믹스 개선이 올해부터 확연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폐쇄 장기화에 따른 원가 상승의 우려가 추정치 상향을 다소 제한한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장기화될 시에는 원가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 LX하우시스의 이익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B2B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B2C에서의 실적 개선이 부문의 마진 믹스 개선을 이끌었다. 주택매매거래량 증가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창호, 바닥재, 마감재 등 시판 물량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고려할 때,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인테리어 수요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작년말까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영향도 마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2분기부터 유가 상승 및 자재수급에 따른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만큼의 마진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거래량의 회복이 인테리어 수요 회복으로 확인한 실적이며, 이는 타 인테리어 업체들도 기대할 부문이 될 수 있다.
- 2분기 원전 이벤트를 업데이트 하자면,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 SMR도 2분기 중으로 수주계약이 있을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체코원전 계약서를 2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규원전(2기) 입찰 준비를 위한 팀코리아 입찰이 3분기에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가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
-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간 종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유가 장기화 및 자재수급 이슈가 2분기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종전과 관련한 중동 재건의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물산, 삼성E&A를 추천한다.

2026년 5월 6일 | Global Equity

에퀴닉스(EQIX.US)

마진율 사상 최고치 + 연간 가이던스 상향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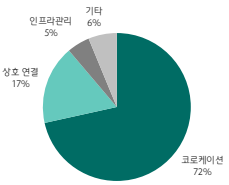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177.30 USD
CP(5.1)	1,085.03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부동산
주요 영업	특수 리츠
홈페이지	www.equinix.com
시가총액(십억USD)	107.0
시가총액(조원)	157.6
52주최고/최저(USD)	1,128.68/710.52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3.59
블랙록	10.9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8.5	30.3	23.9
상대	(1.4)	24.8	(3.3)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8,748	9,217	10,230	11,205
영업이익	1,328	1,848	2,395	2,787
순이익	815	1,350	1,682	1,867
EPS(USD)	8.5	13.8	16.9	18.6
EPS(YOY, %)	(17.6)	61.9	23.1	10.0
ROE(%)	6.3	9.8	12.4	13.4
PER(배)	85.3	53.0	64.0	58.2
PBR(배)	6.8	5.3	7.4	7.2
배당률(%)	1.8	2.4	1.9	2.1

자료: Equinix, 하나증권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1Q26 Review: 컨센서스 하회

에퀴닉스 2026년 1분기 실적은 총 매출액 24.4억달러(YoY +9.8%), EPS 4.22달러(YoY +18.0%, QoQ 56.3%)를 기록했다. 조정 EBITDA는 12.5억달러(YoY +16.7%)로, 마진율 사상 최고치인 50.9%를 달성했다. AI·클라우드 중심의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부문별 코로케이션 17.3억달러(YoY +12.0%), 상호연결 4.5억달러(YoY 13.5%)를 기록했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가이던스 역시 전 부문 상향, CapEx는 총 41억달러로 유지했다. 이외 특이사항으로는 Hampton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xScale JV에 매각했다. 다만, 리스수익 인식시점의 차이로 이번 분기에 매출화되지 않아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P, Q 모두 분기 사상 최고치

① 1분기 총 예약(Gross Bookings)은 3.78억달러로 1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기 중 3,800건 이상 신규 계약이 체결됐고, 경영진은 최대 규모 딜의 약 60%가 AI 워크로드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저지연 네트워크와 광범위한 클라우드 온램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밀도 AI·HPC 랙 비중 확대와 단가 인상이 동시에 실적을 견인했다.

② 월반복매출(MRR)은 고정환율 기준 전년동기대비 약 10% 증가했다. 글로벌 평균 캐비닛당 MRR은 2,524달러로 YoY 7% 상승했으며, 계약 갱신 시 2~5% 수준의 가격 인상이 꾸준히 반영되고 있다. AI·HPC용 고전력 장비 채택과 에퀴닉스 패브릭(Equinix Fabric) 등 상호연결·디지털 서비스 사용 확대가 겹치면서, 단순 공간 임대를 넘어선 고부가 서비스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③ 캐비닛 수(Net Cabinets Billing)는 1분기에 4,100개 순증을 기록해 최근 분기 중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미주·EMEA·APAC 모두 증가해 지역별로 고르게 성장했고, 같은 기간 홍콩·뉴욕·오사카 등 주요 거점에서 리테일 IBX 신규·확장 설비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분기 말 기준 가동률이 70%대 중후반에 머무르는 것은 신규 용량 투입 이후에도 구조적인 초과 수요 시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 현금흐름 부담 요인이나 견조한 실적 흐름 전망

전력비와 대규모 성장 CapEx로 인한 이익률 희석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반면, 리테일 IBX 확장과 xScale 개발을 위한 단기 현금흐름과 배당 여력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밀도 워크로드와 멀티클라우드·인터커넥션 수요에 기반한 높은 수요 가시성, 그리고 두 자릿수 MRR·AFFO 성장 가이던스를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5/4	220,500	232,500	5.44%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5/4	160,500	157,800	-1.68%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LIG디펜스앤에어로 (079550.KS)	5/4	941,000	983,000	4.46%	• 대규모의 수주잔고와 중동 수출 물량 매출인식 본격화로 2028년까지 실적 우상향 기대 • 중동의 방공망 보강 수요와 UAE 방산협력 강화에 따른 천궁-II 추가 수출 기대감
삼양식품 (003230.KS)	5/4	1,341,000	1,316,000	-1.86%	• 밀양 2공장 가동 효과 본격화, 매출 성장 가시성 부각 • 수요 증가, 수출 호조로 견조한 실적 기대감 존재
DN오토모티브 (007340.KS)	5/4	48,050	51,100	6.35%	• 핵심 자회사 DN솔루션즈의 재상장 가능성 낮아질 경우 지분 희석·수요 분산 우려 완화 • 자기주식 11.5%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주환원 확대 시 밸류업 모멘텀 작용 가능
LX인터내셔널 (001120.KS)	5/4	53,400	52,300	-2.06%	• 석탄 가격 강세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트레이딩 마진 확대 기대 • 자원·트레이딩/신성장 부문의 가파른 회복이 예상돼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
리노공업 (058470.KQ)	5/4	119,300	120,800	1.26%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심텍 (222800.KQ)	5/4	87,000	88,200	1.38%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덕산테코피아 (317330.KQ)	5/4	24,000	25,100	4.58%	• 미국 내 한국 셀 메이커들의 ESS 생산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낙수효과 기대 • 자회사 덕산일렉테라의 북미 전해액 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세나테크놀로지 (061090.KQ)	5/4	42,550	42,400	-0.35%	• 모터사이클 중심 매출 구조에서 사이클·아웃도어·산업현장·로봇 분야로 적용처 확대 • 2025년 말 현금성자산 887억원, 부채비율 16.7% 수준의 안정적 재무구조 보유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5%	-3.37%p	+77.04%	+22.6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DN오토모티브 (007340.KS)	5/4	48,050	51,100	6.35%	• 핵심 자회사 DN솔루션즈의 재상장 가능성 낮아질 경우 지분 희석·수요 분산 우려 완화 • 자기주식 11.5%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주환원 확대 시 밸류업 모멘텀 작용 가능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4/27	1,248,000	1,299,000	4.09%	• AI 데이터센터의 GW급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중심의 송전 투자 확대 흐름 지속 • 청주 배전캠퍼스 증설. 배전 제품 포트폴리오 성장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55,500	32.90%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19,700	19.25%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447,000	40.90%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4/13	91,900	98,000	6.64%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32,500	39.06%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27,200	38.56%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7,800	11.21%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502,000	50.98%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80,000	9.29%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22,500	2.92%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595,000	102.73%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6.18%	-6.55%p	+49.59%	-4.7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34,930	18.2%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385	-5.1%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3,130	30.6%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250	40.4%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09.82	50.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0.80	6.6%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8.85	28.9%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81	20.1%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3	5.4	5.5	5.6	5.7	5.8	5.9
	▪대한민국 4월 PMI 제조업 (53.6, 이전치 52.6) ▪유로존 4월 제조업 PMI (E 52.2, 이전치 52.2)	▪미국 4월 PMI 서비스업 (E --, 이전치 51.3) ▪미국 4월 종합 PMI (E --, 이전치 52) ▪미국 4월 ISM 서비스 지수 (E 54, 이전치 54) ▪미국 4월 ISM 서비스 고용 (E --, 이전치 45.2) ▪미국 3월 JOLTs Job Openings Rate (E --, 이전치 4.2%) ▪미국 3월 JOLTs Layoffs Rate (E --, 이전치 1.1%)	▪대한민국 4월 CPI (E --, 이전치 2.2%) ▪중국 4월 레이팅독 종합 PMI (E --, 이전치 51.5%) ▪중국 4월 레이팅독 서비스 PMI (E --, 이전치 52.1%) ▪유로존 4월 종합 PMI (E --, 이전치 48.6%) ▪유로존 4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7.4%) ▪유로존 3월 PPI(전년) (E --, 이전치 -3.0%)	▪일본 3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미국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이전치 --)	▪일본 4월 PMI 종합 (E --, 이전치 52.40%) ▪일본 4월 PMI 서비스 (E --, 이전치 51.2%) ▪독일 3월 무역수지 SA (E --, 이전치 19.8b) ▪미국 4월 실업률 (E 4.4%, 이전치 4.3%)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E --, 이전치 49.8)	
5.10	5.11	5.12	5.13	5.14	5.15	5.16
	▪중국 4월 PPI (E --, 이전치 0.5%) ▪중국 4월 CPI (E --, 이전치 1.0%)	▪유로존 ZEW 서베이 예상 (E --, 이전치 -20.4) ▪미국 4월 CPI (E --, 이전치 3.3%)	▪대한민국 4월 실업률 SA (E --, 이전치 2.7%) ▪유로권 1분기 GDP SA (E --, 이전치 0.1%)	▪미국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이전치 --)	▪일본 4월 PPI (E --, 이전치 2.6%)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